



부산·경남 아침 한때 구름많음 4~17℃ ▶상보 A9면

1920년 3월 5일 창간 ☎090-900-0077, (02)724-5114

chosun.com

# 朝鮮日報

A16

2007년 3월 22일 목요일 나

## 韓·日 해저터널 논란 떠오른다

### 부산시, 워크숍·국제세미나 준비... 반대 집회도 열려

지난 2월 말 허남식(許南植) 부산시장의 한일(韓日)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논의 제기 이후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갖는 등 한일해저터널이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1일 오전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시민단체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해저터널 반대 시민단체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집회 참가자들은 "(한일해저터널이) 부산경제를 통과경제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하며 한일해저터널 논의 즉각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일해저터널 논의 즉각중단 촉구문'을 내고 "해저터널 건설은 재정부담이 크고, 물류중심 기능도 일본이 가져가며 부산을 한낱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한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일해저터널 논의 중단 요구집회를 갖고 있다.

일해저터널의 경제성이 추상적 허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는 교통국 차원에서 다음 달 초 한일해저터널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부산발전연구원은 4월 말쯤 일본의 한일해저터널연구회쪽 사람들과 국내 찬반측 전문가들을

초청, 국제세미나를 준비중이다. 부산발전연구원측은 현재 세미나 참가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측은 "어느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일해저터널의 타당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ark21@chosun.com

## 朝鮮日報

2007年3月22日(木) 釜山・慶尚南道版

## 韓日海底トンネル論争が過熱化

釜山市、ワークショップ・国際セミナー……反対集会も開かれる

今年2月末、許南植（ホ・ナムシク）釜山市長が韓日海底トンネル建設の妥当性について検討すると表明して以来、市民団体らが反対集会を開くなど、韓日海底トンネルが釜山地域のホットイシューとして浮上している。

「釜山経済活性化市民連帯」や「釜山港を愛する市民の集い」は21日午前、釜山西面のロッテデパート前で市民団体代表50人余りが出席した中、「韓日海底トンネル反対市民団体集会」を開催した。この集会の参加者らは「（韓日海底トンネルが）釜山経済を通過経済に転落させる」と主張し、韓日海底トンネルに関する検討を直ちに中断するよう求めた。

また、集会参加者らは「韓日海底トンネル検討の即時中断を求める声明文」を出し、「海底トンネル建設は財政負担が余りに大きい上に、物流の中心機能が日本に移り、釜山が単なる経由地に転落する可能性がある。韓日海底トンネルの経済性は抽象的虚構に過ぎず、検討を直ちに中断すべき」と主張した。

一方釜山市は、交通局のレベルで来月初めに韓日海底トンネルに関するワークショップを開く予定。また釜山発展研究院は、日本の日韓海底トンネル研究会や韓国の賛否双方の意見を持つ専門家らを呼ぶ国際セミナーを4月末ごろ開催する予定で、現在セミナーに出席する専門家らとの交渉を進めている。

国際セミナー開催について、釜山発展研究院は「賛否どちらの方向に進むかを決めるというのではなく、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妥当性について話し合おうという性格のセミナー」と説明した。

朴柱榮（パク・チュヨン）記者